

# KIA 이용규·김진우 1군 복귀 언제쯤...

李 공·수 합격 출격 체비 金 제구력 난조 아직은...

KIA 타이거즈의 이용규와 김진우가 8일 무등야구장에서 열린 두산 베어스와의 2군 경기에서 출전해 컨디션 점검을 받았다. 허벅지 근육 부분과열로 재활을 해왔던 이용규는 이날 1번타자 겸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공·수에서 합격점을 받으며 1군 복귀 준비를 완료했다. 1군 무대를 타진하고 있는 투수 김진우는 1과3분의1이닝 무실점 피칭을 기록했지만 '제구력 잡기'가 숙제로 떠올랐다. 전날 2루타 포함 2개의 안타를 때려냈던 이용규는 1회말 첫 타석에서 두산 안규영의 직구를 공략해 우중간을 가르는 2루타로 출루에 성공했다. 후속타 불발로 득점은 올리지 못했다. 3회 두 번째 타석에서는 쓰리볼에서 낮은 볼을 걷어올려 2루수 파울플레이로 물러났고, 6회에는 1루수 앞 땅볼로 돌아섰다. 7일 지명타자로 출전했던 이용규는 8일에

는 우익수로 나가 수비 점검도 받았다. 이용규는 폭넓은 수비범위를 보이며 김동한의 깊숙한 플레이 타구를 깔끔하게 처리하는 등 공·수에서 꽤 조의 컨디션을 보였다. 7회 이계우로 교체된 이용규는 "타격감도 좋고 수비할 때도 통증이라던가 불편함이 없다. 몸 준비가 다 된 만큼 1군에서 그동안 못했던 역할을 다 하겠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지난 2일 군산에서 열린 LG와의 경기에서 첫 등판했던 김진우는 6일에 이어 8일 세 번째 2군 등판을 마쳤다. 김진우는 0-3으로 뒤지던 2회초 무사 1:3 루에 등판해 폭투를 기록했지만 중견수플라이로 원아웃을 잡았다. 그사이 3루주자가 홈을 밟았고, 다시 폭투가 나오면서 한 점을 더 내줬지만 이후 2루 땅볼과 우익수 플라이로 아웃카운트 세 개를 채웠다. 변화구 제구가 되지 않으면서 2회 두 개의



폭투를 기록했던 김진우는 3회에도 두 타자를 연속 불넷으로 내보내며 제구 난조를 보였다. 릴리스 포인트가 일정치 않으면서 변화구 구사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143km짜리 투심패스트볼로 이원희를 헛스윙 삼진으로 돌려 세우며 탈삼진도 하나 기록했다. 27개의 공을 던진 김진우의 최고 구속은 144km였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美 최고 경마대회 켄터키 더비 '애니멀 킹덤' 우승 질주

3년생 수말 '애니멀 킹덤'이 미국 최고의 경마대회 켄터키 더비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애니멀 킹덤은 7일(현지시간) 미국 켄터키주 루이빌에서 열린 제137회 켄터키 더비에서 2km를 2분2초04에 질주하며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다. 켄터키 더비는 3년생 말들만 출전하는 대회로 '프리크니스 스테이크스', '벨모트 스테이크스'와 함께 미국 3대 경마대회 중의 하나다. 기수 존 벨라스케스(사진 가운데 빨간모자)는 우승 확률

이 높지 않았던 애니멀 킹덤을 우승으로 이끌며 최고의 행운아가 됐다. 벨라스케스는 당초 우승후보 '앵클 모'에 기승할 예정이었지만 말이 말이 위에 말이 나는 바람에 대회 출전이 힘들어졌다. 하지만 애니멀 킹덤의 기수가 대회를 앞두고 코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하자 벨라스케스는 대타로 애니멀 킹덤을 타고 우승까지 차지하는 행운을 잡았다. /연합뉴스



8일 제6회 클럽챔피언대회 및 제7회 회원친선골프대회가 열린 함평다이내스티CC에서 회원들이 경기에 앞서 페어플레이를 다짐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함평다이내스티 개장 7돌 '회원의 날'

클럽챔피언에 정동혁... 여성 메달리스트 조영주씨

정동혁(38·자영업)회원이 호남의 대표적인 골프클럽인 함평다이내스티 CC의 제6대 클럽챔피언에 등극했다. 정씨는 '세계적 양산디 골프장' 함평다이내스티CC가 8일 개최한 제6회 클럽챔피언 선발대회에서 3라운드 스트로크 합계 240타(79-78-83)를 쳐 평균 80타를 기록하며 우승했다. 준우승은 합계 241타(80-85-79)를 쳐서 평균 80.3타수를 기록한 박성열(39·태양개발) 회원에게 돌아갔다.

함평다이내스티CC 개장 7주년인 이날 치러진 클럽챔피언 선발대회는 제7회 회원 친선골프대회와 함께 치러졌다. 27홀 3개 코스에서 신페리오 방식으로 동시에 진행된 회원친선 골프대회에서는 213명의 회원이 참석해 평소와 같고 닭은 기량을 겨뤘다. 임페리얼 코스에서는 70.4타를 기록한 임동철(53·주)서해건설 대표 회원이, 마제스티 코스에서는 68.8타를 친 정재학(39·의사)회원이, 펠릭스 코스에서는 71.

6타를 기록한 이경(57·주)대리종합건설 대표 회원이 우승했다. 또 정해삼(58·주)엘씨 대표 회원은 최저타인 72타로 통합코스 메달리스트에 올랐다. 여성 중에서는 조영주(59·약사) 회원이 71.6타를 쳐 우승의 영광을 안았다. 함평다이내스티CC는 참가 회원 전원에게 클럽 로고볼과 모자를 증정했으며, 대회를 마친 뒤 뷔페식과 생맥주를 곁들인 만찬을 열어 회원 간 친목을 다지게 했다. /김경인지사 kki@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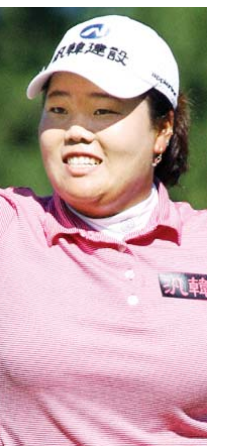
## 김경태는 한국서... 안선주는 일본서... '메이저 우승'

대회 최저타로 매경오픈 우승컵



김경태(25·신한금융그룹)가 제30회 GS칼텍스 매경오픈 골프대회에서 정상에 올라 4년 만에 국내 대회 우승컵을 차지했다. 지난해 일본프로골프투어(JGTO) 상금왕인 김경태는 8일 경기도 성남시 남서울골프장(파72·6964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6언더파 66타의 맹타를 휘둘렀다. 이로써 합계 21언더파 267타를 친 김경태는 13언더파 275타로 공동 2위에 오른 조민규(23)와 김형성(31)을 8타 차로 따돌리고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김경태의 스코어는 2002년 이 대회에서 뉴질랜드 교포 이승용(28)이 작성한 지금까지의 최저타 기록(20언더파 268타)을 1타 줄인 것이다. 6타 차 단독 선두로 마지막 라운드에 나선 김경태는 전반에 2타를 줄여 경쟁자들의 추격을 허용하지 않았다. 김경태는 4인 10번홀과 12번홀에서 버디를 잡아내 사실상 우승을 확정 짓고 나서 대회 최저타 기록을 작성하는 데 주력했다. 13번홀(파4)에서도 1타를 줄여 20언더파를 만든 김경태는 15번홀(파4)에서 1m짜리 버디 퍼트를 집어넣어 마침내 새 기록을 작성했다. /연합뉴스

JLPGA 시즌 첫 승... 상금왕 순창



안선주(24)가 일본여자프로골프(JLPGA) 투어에서 올 시즌 첫 우승을 차지했다. 안선주는 8일 일본 이바라키현의 이바라키 골프장 서코스(파72·6655야드)에서 열린 JLPGA 메이저대회인 월드레이디스 챔피언십 샬롱파스컵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3타를 줄여 합계 10언더파 278타로 정상에 올랐다. 사이키 미키(일본)와 테레사 루(대만)는 3타 뒤진 7언더파 281타로 공동 2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JLPGA 상금왕인 안선주는 시즌 처음이자 통산 다섯 번째 우승컵을 들어 올리며 2년 연속 상금왕을 향해 순항했다. 한국 선수로서는 3월에 열린 다이킨 오픈 레이디스 대회에서 우승한 박인비(23)에 이어 두 번째 우승이다. 일본 메이저대회에서 첫 우승컵을 차지한 안선주는 2400만엔을 받아 시즌 상금 랭킹 1위(2930만엔)로 뛰어올랐다. 선두에 1타 뒤진 채 4라운드를 시작한 안선주는 전반에 버디 2개를 보기에 2개로 맞바꿔 타수를 줄이지 못했지만, 후반에만 3타를 줄여 역전에 성공했다. /연합뉴스

